전주 종광대 토성 역사적 가치 조명

전주시 · 후백제학회, 학술대회 개최… 사적 지정 방향 · 토성 유적 활용 · 보존 방안 등 논의

후백제의 관련 유적이 대거 출토된 전주시 중노송동 종광대 토성이 역사 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사적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 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와 후백제학회는 13일 전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후백제 관련 대표 유적인 전주 종광대 토성의 발굴 성과 를 공유하고, 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한 '전주 종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6월 전북특별 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전주 종광대 토성이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 고학・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사 적 지정의 방향과 토성의 유적 활용 및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6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대성 전북문화유산연구원 팀장은 '전주 종 광대 토성의 조사성과'를 주제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전주 종광대 토성의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시에 대한 성과와 향후 학 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방향 등을 정리 했다.

이어 허인욱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



전주시와 후백제학회는 13일 전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후백제 관련 대표 유적인 전주 종광대 토성의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 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한 '전주 종 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수는 '문헌기록으로 본 후백제 궁성의 위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문헌 기록과 발굴 유적·유물을 통해 후백 제 왕성, 즉 궁성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종광대 토성의 중요성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최흥선 국립광 주박물관장은 '전주 종광대 토성으로 본 후백제 도성의 범위와 구조'를 주 제로 전주 종광대 토성을 비롯해 후백 제 도성으로 알려진 발이산과 자만동, 오목대 일원의 후백제 도성(토성)의 발굴조사 내용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을 강조했다.

후백제 도성의 구조와 범위에 대해 분 석했다.

'전주 종광대 토성의 축조기법 검 토 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심광주 한 국성곽연구소장은 전주 종광대 토성 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토성 축 조기법을 분석하고, 인근의 기자촌, 오 목대, 발이산, 자민동의 토성의 축조 양성을 비교했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차인국 조선문 화유산연구원 팀장은 전주 종광대 토 성 출토 후백제의 기와를 중심으로 형 태, 문양, 기와 제작기법 등을 검토했 으며, 광주 무진고성과 전주 동고산성, 광양 마로산성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 는 후백제 시기의 기와와 비교해 전주 종광태 토성이 후백제에 축조된 토성 임을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강인에 원광대학교 교수는 전주 종광대 토성의 현황과 지형, 그리고 확인된 토성의 성격을 바탕으로 보존과 정비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특히 강 교수는 향후 후백제 연구자와 시민들이 전주 종광대 토성의 현황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있는 탐방로와 전시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운 전주 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상학 전주 문화유산연구원 실장과 조대연 전북대 학교 교수, 이규훈 국립완주문화유산 연구소장, 유재춘 강원대학교 교수, 최 정혜 전 부산복천박물관장, 한주성 한 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 해 전주 종광대 토성의 가치와 사적 지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학술대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적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사적분과)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대변혁 위한 시민 목소리 청취

우범기 시장, 여의동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 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 변혁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여의동주민센터 강당에서 도·시의원과 여의동 자생 단체 회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 한 기운데 '2025 찾아기는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우 시장은 여의동 주민들에게 민선 8기 4년차를 맞아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라는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Δ완주-전주 통합 Δ광역거 접도시 조성 등 전주시 주요 추진 사 업을 공유했다.

이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주 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시항을 청취했다.

여의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Δ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지역주민 이용편의 방안 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고랑동 신흥마을 침수방지 대책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대한민 국 중심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 록,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이고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가을철 산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완산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림 보호와 시 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13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주간(오전 9시~오후 8 시) 상시 비상근무를 기본으로 토·공 휴일에도 동일하게 운영되며, 야간시 간대는 당직 근무와 연계해 24시간 대 응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본부는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산불상 황실에 설치됐으며, 전주시 산립공원 과와 덕진구청에도 상황실이 함께 운

구는 이 기간 산불의 발생부터 진화

까지 초동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불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문자메시지(CBS)와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권고 및 명령 등단계별 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시민 안 점을 확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산불 상황 관제시스 템을 활용해 신고접수부터 현장 분석, 진화 대응, 보고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 민과 산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

윤동욱 부시장 · 주요 간부공무원들, 국회 방문해 현안 반영 요청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앞당길 내년 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 가 진행 중인 국회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앞서 윤 부시장은 연초부터 지역의 현안 사업과 전주의 미래를 밝혀줄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해 예산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

이날 윤 부시장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을 직 접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또 김윤덕(더불어민주 당, 전주시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등 지역 국회의원실과 한병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익산시을),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조배숙(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예결위원 의원실을 차례대로 찾아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인 만큼 기획재정부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날 주요 사업 관련 기재부예산실 과장들을 만나 예산 반영을 위한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 부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Δ 유학 정신을 있는 심신 수양 및한국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Δ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주 영화·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영상 실증지원센터 소전주의 글로벌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전주 국제그림책도서전 소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야간 문화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가예산 확보 활동 에는 임숙희 경제산업국장, 노은영 문 화체육관광국장, 박남미 도서관평생학 습본부장 등 주요 간부공무원들도 핵 심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운동욱 부시장은 "전주시에 꼭 필요 한 2026년도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본예산 의결 예정일인 12 월 2일까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 겠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 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총력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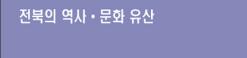
전주시 완산구, 겨울철 대비 폭설·한파 선제적 대응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본 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 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폭설과 한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완산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설해대책기간' 동안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제설 대응체계 점검및 구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구는 주·간선도로 45개 노선 (335km)과 상습결빙구간 15개소(15.21 km) 등 총 60개 노선, 350km 구간을 제 설 관리구간으로 정하고, 폭설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울러 구는 도로 결빙 예방을 위한열선 설치 사업도 추진하며, 설해대책기간에는 건설과 자신상황실을 중심으

달전 열차 사업도 무진하며, 열해대적 기간에는 건설과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도로 상황 관리 와 비상연락체계 가동을 병행한다. 또, 적설 예보 시에는 주요 도로에 제설 자재를 사전 살포해 교통 불편과 안전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라감영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 E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 I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 II 자리제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 기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

네트워마는 조계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 욕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 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의 중증석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백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 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 이었다.



